

Culture Information

: 미디어 속 직업병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에서 주인공 철수(차승원 분)는 한때 소방관이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정신지체를 갖게 되면서 소방관을 그만 두고 만다. 치명적인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으로 난청이 있다. 출동 시 사이렌이 울리는 등 심한 소음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 편집실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소방관에게 발생하기 쉬운 병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2019)>를 통해 본
소음성 난청



소음과 피로에 노출된 소방관, 난청에 걸릴 수도

영화는 2003년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화재를 주요 소재로 다룬다. 식당을 운영하는 철수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그래서 뛰어난 외모를 가졌지만 이따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수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다. 피를 뽑으려는 이름 모를 아줌마, 존재조차 몰랐던 딸 셋별(엄채영)의 등장, 양아치들에게 신용카드를 빼앗기는 등 영문 모를 사건들이 일어난다.

철수가 대구 지하철 참사에 뛰어난 소방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화의 미스터리가 풀린다. 셋별은 참사 당시 임신했던 아내가 사망 직전에 출산한 아이로 유독 물질에 노출된 탓에 백혈병을 앓고 있다. 피를 뽑으려던 사람은 골수 이식 적합성을 검사하려던 장모였고 일련의 사건들은 철수가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은 탓에 낯설게 비쳐졌던 것이다.

영화는 소방관이 처하게 되는 위험을 보여준다. 사건 현장을 가득 채운 유독가스, 방화벽으로 막힌 통로 등의 난관이 철수를 기다린다. 하지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난청이다. 출동 때마다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다.

일반 직종 종사자도 꾸준히 건강검진으로 확인해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조사한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정을 받은 1만 9,29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9%가 소음성 난청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무상요양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가 됐고 지난해 4월에는 법원이 청력을 잃은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방관들의 청력 저하는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

에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75 dB 이상의 소음은 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116 dB 수준이다. 여기에 직업 특성상 수면 시간이 적고 업무량이 과도해 청력 저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생물 실험 결과 수면 시간이 적은 개체는 혈액 내 염증이 증가해 청각 기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맥경화와 같은 혈류 문제도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팽이관의 미세혈류가 변화하면 소음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흡연도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중 산소를 낮춰 난청의 원인이 된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청력이 6.8 dB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반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건강검진으로 수시로 난청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 🍷

난청이 있나요? 체크해보세요!

-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크게 켜놓는다.
-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 귀가 울어대는 이명 증상이 있다.
- 불안감, 불면증, 두통, 피로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 맥박, 혈압 이상, 소화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난청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찾아가 MRI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TIP

난청, 이렇게 예방해요!

- 소음의 원인과 예상되는 장소를 피한다.
- 소음이 있는 장소에 꼭 가야 한다면 귀마개를 사용한다.
- 이어폰의 볼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다.
- 자주 조용한 장소에서 귀를 쉬게 한다.
- 항생제 등 일부 약물은 의사와 상의해 복용한다.